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25호 [루게 제24373호] 주체102(2013)년 11월 21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가 진행되었다

은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가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를 지도하시였다.

대회에는 군종, 군단 정치위원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로켓군, 각급 군사학교를 비롯한 무력기관의 보위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장은 인민군보위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를 소집하도록 해주시고 대회참가자들에게 강령적인 서한



바쁘신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대회를 지도하시기 위해 나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최대의 유산으로 물려주신 사회주의제도를 한몸바쳐 보위해가고있는 대회참가자들을 고무격려해주시였다.

최룡해동지, 김원홍동지, 김수길동지, 럽철성동지, 조경철동지를 비롯한 무력기관의 지휘성원들과 모범적인 보위일군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대회는 영생불멸의 혁명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최룡해동지의 개회사에 이어 조선인민군 육군상장 조경철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각별한 신임과 기대속에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보위기관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며 모든 보위일군들을 수병보위, 정책보위, 제도보위, 대렬보위전으로 총결기시키는 역사적인 대회로 선군혁명사에 빛나게 수록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력사적전환기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보위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자》를 보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열화와 같은 흠모와 감사의 정으로 하여 세차게 뉘어 번지고있었다.

대 회 장 정 면 에 는 위 대 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조선로동당기와 최고사령관기를 배경으로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백두산모형과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라는 글발이 걸려있었다.

주석단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대 회 장 에 는 또 한 《위 대 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력사적전환기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보위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자!》는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강성국가건설대전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것처럼



2 면 으 로 계 속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가 진행되었다



1 면에서 계속

그는 인민군보위기관은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선군혁명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치시며 손잡아 키워 주신 당의 정치보위대, 총대보위기관이라고 말하였다.

피어린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주체적인 군보위사상과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현대적정규무력건설의 초시기에 인민군보위기관을 창립해 주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보위기관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 주시며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1993년 10월 건군사상 처음으로 조선인민군보위일군대회를 소집해 주시고 대회참가

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여 보위전사들이 틀어쥐고나갈 필승의 보증을 안겨 주시였으며 인민군보위사업이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진행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 주시였다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체의 군보위사상과 업적은 오늘 불세출의 선군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서 인민군보위기관은 수령결사옹위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여 언제 어디서나 혁명하는 핵심부대로 장성강화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인민군보위일군들이 땅이 가리키는 길로만 나아가는 사상과 신념의 최강자, 최고사령관동지와 뜻도 숨결도 운명도 함께 하는 선군혁명전사로 역세게 자라났다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인민군보위일군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으며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인민군보위사업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삼가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렸다.

보고에서는 지난 기간 각급 보위기관들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업들이 언급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선군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여 우리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며 최후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하면서 모두다 최고사령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 따라 이 땅위에 김정은백두산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대회에서는 보위일군들인 리만수, 김원봉, 김능성, 리덕송, 최명호, 김숙일, 김명현, 라영학, 강유위, 리학철, 한경호, 김명호, 김건식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을 심장깊이 새기고 인민군보위기관에 최고사령관동지의 유일적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과 수령, 우리의 사상과 제도, 혁명의 총대를 보위하는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대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주약으로 끝났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 구호의 합성을 터쳐올리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와 총대보위전사들사이에 맺어진 줄을래야 끊을수 없는 혼연일체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한 대회, 수령결사옹위의 맹세를 천백배로 다진 충정의 대회합으로 주체의 건군사에 길이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다.

본사정치정보단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 참가자들을 축하하는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최룡해동지, 김원홍동지, 김수길동지, 렬철성동지, 조정철동지, 황병서동지가 공연을 함께 보았다.

공연장소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공연을 보게 된 관람자들의 무한한 격정으로 하여 세계계설레이고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은 영광의 대회장에 불러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으며 공연도 함께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겨워 솟구치는 눈물을 걸잡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첼의 의지라는것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관람자들은 공연을 보면서 우리의 희망, 아름다운 미래, 우리의 행복이고 승리인 영원불멸할 당과 함께 모든 영광을 맞이하게 되리라는것을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령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혁명의 전투에 서계시고 불패의 일심단결이 있기에 최후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것을 뜨겁게 새겨준 공연은 종곡 《운명도 미래도 말기분》으로 끝났다.

심장의 피를 끓게 하는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관람자들과 출연자들의 《만세!》의 환호성으로 하여 장내는 대하마냥 설레이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하시며 손저어주시였다.

관현악과 남성합창 《조선인민군가》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남성2중창과 남성합창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언제나 수령님을 우러러》, 남성합창 《병사들은 행군해간다》, 관현악 《가마마차 달린다》,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고지에서의 노래》, 남성독창과 남성방창 《선군승리 열두달》,

남성합창 《우리 앞날 밝다》,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녀성독창 《보위자의 노래》, 남성합창 《사회주의 지키세》, 《오늘도 7련대는 우리앞에 있어라》 등의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공연을 통하여 이 땅우에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워주시며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쳐

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높이 칭송하였다.

또한 위대한 우리당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영원히 최고사령관동지와 생사운명을 함께 하려는것은 이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간직된 억척불변의 신념이며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는

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보위전사들이 앞으로 당의 령도에 끝까지 충실하며 자기들앞에 맡겨진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지보도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최룡해동지, 김원홍동지, 김수길동지, 량철성동지, 조정철동지, 황병서동지가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가슴은 감격과 환희로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에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를 통하여 인민군보위기관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되었다고 하시면서 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 구호의 함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과 영광의 대회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은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를 몸소 지도해주시며 인민군보위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결정적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보내시었다.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귀중한 당의 믿음을 인생의 값높은 영광과 행복으로 간직하고 누가 보건 다진 충정의 맹세를 한치의 드림도 없는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말건, 알아주건말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길에 한

당의 믿음을 인생의 값높은 영광과 행복으로 간직하고 누가 보건 다진 충정의 맹세를 한치의 드림도 없는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말건, 알아주건말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길에 한

장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생을 바쳐가고있는 보위전사들의

본사정치보도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과 위문전문을 보내었다

발 레

말디브제도공화국 대통령 아브둘라 아민 아브둘 가이움각하

나는 말디브제도공화국 대통령으로 선거된 당신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고있는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2(2013)년 11월 20일 평 양

이탈리아공화국 대통령 조르조 나폴리타노각하

나는 얼마전 귀국의 쓰르레나섬이 태풍에 의한 큰물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입었다는 불행한 소식이 접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포함합니다. 나는 귀국정부와 인민이 자연재해의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계 회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2(2013)년 11월 20일 평 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벨라리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평양 11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벨라리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20일 만수대의 사무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당을 따라 주체의 한길을 곳곳이 걸어갈 철석의 신념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에 대한 각계의 반향

성스러운 기폭아래 일심단결의 위력 영원하리

지금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는 당의 평도밑에 사 회주의문명국건설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여온 천만군민의 가슴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 위대한 평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은 우리 조국, 우리 인민, 우리 혁명을 책임지고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위대한 항도자이다.》 혁명의 년대마다에 그러하였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올해에 당기와 더불어 가슴뜨거운 체험을 하였다. 새해의 첫 아침 텔레비전화면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던 그때 천만군민은 화면에 비쳐진 당기를 보았

우리 당기는 어제 오늘도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며 그토록 존엄하고 소중한것이다. 흐르는 날과 달을 수십년맞잡이로 줄달음쳐 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 언제나 당기는 펄펄 휘 날려왔다. 올해 2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나라의 국력을 만방에 떨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군인건설자, 일군들과 함께 당기가 휘 날리는 당중앙위원회청사에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내 나라의 푸른 하늘가에 휘 날리는 당기를 바라보며 천만군민이 받아안던 그날의 환희와 격정을 명곡의 음악세계는 가슴

표주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자신의 존함을 새겨넣도록 하신 우리의 원수님이다. 그러시고도 유가족들에게 당 마크가 새겨진 붉은 천에 싸인 용사들의 사진을 보내주시었으니 진정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주는 어머니당의 품이다. 참으로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받아안는 가슴뜨거운 체험과 맹세를 그대로 주옥같은 시어로 엮은 당에 대한 찬가이다. 위대한 당의 평도를 받고 당의 품속에서 촉발받은 삶을 누려가는 천만군민의 힘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 의 순

우리의 희망, 우리의 미래

당보지면을 통하여 새로 나온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를 받아안고보니 조선로동당기발에 대한 하나의 훌륭한 명가사, 명곡이 태어났다는 생각으로 하여 격정과 흥분을 금할수 없다. 위대한 평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에서 자기들의 광범한 미래를 내다보고있으며 당의 령도가 있는 한 주체의 혁명위업을 반드시 완성할수 있다 는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 있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기대, 신뢰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이런 명곡이 태어났다는 것은 력사의 필연이라고도 할 수 있다. 노래의 구절구절을 새겨붙

우리 대학의 일군들과 교원들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예술교육사업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일으켜 나감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군 혁명위업을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훌륭한 음악예술인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데 모든 지혜와 정열을 아낌없이 바쳐나가겠다.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학장 겸 주제음악연구소 소장 리 일 남

천만의 심장을 울려주는 시대의 명작

주체음악예술의 보물고를 풍부하게 하는 또 하나의 훌륭한 명곡을 받아안은 우리 만수대에술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의 가슴가슴은 세찬 충적으로 끓어번지고있다.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는 사상성과 예술성이 융합된 경지를 이룬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로동당찬가이다. 노래는 시대의 산물이라는 말이 있다.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는 온 나라 방방곡곡에 위대한 어머니당에 대한 복받치는 고마움이 뜨겁게 끓어 넘쳐흐르는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가 낳은 명곡중의 명곡이다. 생활적이면서도 형상성이 풍부한 시어들로 온 나라 민들의 심장속에 뜨겁게 끓어넘치는 절절한 사상감정을 정서적으로 감명있게 밝혀낸 이 노래는 나오자마자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잡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명가사가 있어야 명곡이 나온

